

# 국어교육과 문화의 계승과 창달

이삼형 한양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

이지선 한양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강사

- I. 머리말
- II. 문학 중심의 문화교육 극복하기
- III. 실체 중심에서 수행 중심으로
- IV. 맺음말

## I. 머리말

본고는 현재 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위해 국어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화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은 국어문화에 대한 교육인 동시에, 국어 문화의 계승과 창달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sup>1</sup> 국어교육을 문화교육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언어는 그 자체로 문화의 일종이기 때문에 언어를 다루는 교육인 국어교육이 문화교육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당위 명제로 여겨진다. 이에 국어교육을 해석하는 입각점을 ‘문화’에 두는 문화론적 관점이 활발하게 논의된 바 있으며 상당한 정도로 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천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이는 교육과정의 목표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

1 김창원(2002)에서는 문화가 국어교육의 내용이나 배경이기보다는 철학이자 이론으로 보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즉 국어교육에서 ‘문화’란 내용의 한 요소로 국한되기보다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관점으로서 ‘문화론’이어야 한다. 김창원(2002), 「국어교육과 문화론: ‘국어 문화창조’의 이념은 정당한가」, 『한국초등국어교육』 20, 1-23.

문화론적 관점에서 학습자는 문화의 수용자라기보다는 문화의 계승과 창달의 주체다. 따라서 교육의 목표는 가치 있는 언어문화를 전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학습자의 문화 계승·창조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선언적 의미에 불구하고, 문화교육은 주로 문학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특히 이해·표현 영역에서는 문화를 계승하고 창달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소략하게만 다루고 있는 편이다. 이는 각 영역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언어문화의 실체인 문학에 대한 교육은 곧 문화교육이라는 전제가 자연스럽게 성립되는 반면, 언어활동에 초점이 있는 이해·표현 영역의 교육에서는 문화를 다루기가 쉽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란 문학 작품이라는 실체에만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 문예문뿐만 아니라 일상적이거나 실용적이었던 언어생활을 보여주는 언어문화 자료들 역시 계승하고 창달할 만한 가치 있는 교육 내용들이다. 또한 ‘문화를 계승하고 창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행적 목표다. 따라서 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위해서는 문학 작품이라는 실체를 중심으로 문화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관점을 넘어, 학습자가 문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담화나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을 문화교육의 내용으로 구성하는 관점을 취해야 한다. 이해와 표현이라는 언어활동 자체를 다루는 영역에서도 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위한 교육 내용이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본고는 문화교육의 관점에서 국어교육을 바라봐야 한다는 논의에 동의하며, 문화 계승과 창달을 위한 국어교육의 방향을 고찰해 보려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 문학 중심의 문화교육의 실상을 살펴 성과와 한계를 분석할 것이다. 3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문화 계승과 창달을 위한 문화교육의 방법을 제언하려 한다.

## II. 문학 중심의 문화교육 극복하기

### 1. 문학 중심의 문화교육론

국어교육을 문화교육으로 보는 관점은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이를

환(1974)에서는 국어교육의 성격에 대해 ‘인간 교육의 중심이자 문화 창조의 교육’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sup>2</sup> 정동화 외(1984)에서도 국어교과의 성격을 ‘도구 교과, 형식 교과, 인간·사회·국가·문화 형성의 중추 교과’로 규정하였다.<sup>3</sup>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국어교육의 목표가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임을 지속적으로 천명하여, 국어교육의 문화교육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sup>4</sup>

- 7차 교육과정 목표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2009 개정 교육과정 목표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여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문화를 누리면서 국어의 창의적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2015 개정 교육과정 목표

국어로 이루어지는 이해·표현 활동 및 문법과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품위 있고 개성 있는 국어를 사용하며, **국어문화를 향유하면서 국어의 발전과 국어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위에 제시한 교육과정에서 현재 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에 접근하는 양상 몇 가지를 추출해 낼 수 있다. 먼저, 문화교육은 학습자가 “국어

2 이을환(1974), 「국어교육에서 본 언어의 제사·메타(meta)-예술적 기능, 『청과문학』 11,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2-23.

3 정동화·이현복·최현섭(1984), 『(초·중·고·대)국어과교육론』, 선일문화사.

4 교육부(1997),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 1], 교육과학기술부(2011),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 5],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제7차), “국어 문화를 누리면서”(2009 개정), “국어문화를 향유”(2015 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어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즉 국어교육은 ‘국어 문화에 대한 교육’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국어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 주체로 성장’하게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국어교육에서 기르려고 하는 문화능력은 매우 고차원적인 능력인 것이다.

그런데 교육과정의 목표 진술이 국어 문화를 국어의 이해 및 사용과 별개의 차원으로 두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된다. 이는 ‘이해-사용-능력 및 태도’의 3단 구조로 이루어진 목표 진술에서 사용에서 능력으로 넘어갈 때, 위에서 말한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7차), “국어 문화를 누리면서”(2009 개정), “국어문화를 향유하면서”(2015 개정)라는 구절이 삽입된 것에서 확인된다.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7차 교육과정으로, “----- 이해하고, ---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라는 진술은 문장 구조 상 ‘국어 문화를 이해하는 일’을 ‘국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일’과는 별개의 차원으로 보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관점이 문화교육을 이해·표현 영역 교육과는 배타적인 교육 범주로 설정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유사한 관점은 문화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에 대한 선행 논의에서도 나타난다. 이 방면의 연구에서 선편을 잡은 연구자인 김대행(1994)은 국어교과학의 내용론적 연구 영역은 도구 영역과 문화 영역으로 분리함으로써 사용으로서의 표현과 이해, 국어학을 문화 영역과 배타적인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sup>5</sup>

#### ● 내용론적 연구 영역

- ① 도구 영역: 체계로서의 국어 활동 연구 영역(국어학), 사용으로서의 국어 활동 연구 영역(표현 이해 영역)

5 김대행(1994), 「국어교육과 국어교과학」, 『선청어문』 22(1), 서울대 국어교육과, 59-96.

② 문화 영역: 생활문화로서의 국어 활동 연구 영역(대중문화, 매체언어, 구전문화 등), 예술문화로서의 국어 활동 연구 영역(문학 영역)

이러한 관점을 취하면 문화교육은 주로 문학 영역에서 담당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십상이다. 민현식(2005)에도 이러한 시각이 드러난다. 이 논의에서는 국어 능력을 1~3차 능력으로 위계화하며, 1차 능력을 문법 능력, 2차 능력을 표현력·이해력, 3차 능력을 문학 능력 및 문화 능력(문화 이해력, 비판력, 창의력)으로 설정하고 있다.<sup>6</sup> 이 경우에도 문법 능력 및 이해·표현 능력은 문화 능력과 다른 범주의 능력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각은 다음 윤여탁(2015)에서의 논의처럼 비교적 최근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술 교과 또는 문화 교과라는 국어 교과는 공집합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국어교육의 사용, 문화, 이념, 예술이라는 네 가지 본질과 특성 중에서 **문화와 예술이라는 속성은 문화 창조, 창의적 사고 등을 통하여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문학이라는 예술의 향유(창작과 수용)의 형태로 발현된다.**<sup>7</sup>

이 관점들에는 ‘문화’를 ‘고급문화’로서 바라보는 관점과, 문학은 언어의 정수로서 기능적 문식성과는 다른 높은 수준의 문화적 가치가 들어 있다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국어교육 내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교육과정의 목표 진술도 이러한 학계의 담론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국어교육을 문화교육으로서 보는 관점을 세우기 위해서는 문학 영역을 중심으로 문화교육을 논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었다. 문학 영역은 ‘작품’이라는 실체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영역이기에 ‘실체’를 근간으로 한 구체적인 문화교육 내용을 마련해 줄 수 있었던

6 민현식, 「국어 교육 개관」, 박영목 외(2005), 『국어교육론 1. 국어 교과 교육론』, 한국문화사, 63.

7 윤여탁(2015), 「창의적 문화 세대를 위한 국어교육의 지향」, 『국어교육연구』 57, 국어교육학회, 7.

것이다. 또한 과거의 문학 작품에 대한 학습은 그 자체로 선대(先代)의 가치 있는 언어문화를 계승하는 활동이므로, 문학 영역에서 문화를 계승하고 창달한다는 인식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입각점은 문화의 계승·창달을 위한 교육을 문학 영역의 교육으로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교육과정의 이해·표현 영역에서는 관련 성취기준을 찾기 힘들고, 있더라도 단편적으로 산재해 있어 전통 언어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교육 내용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이해·표현 영역에서는 ‘기능’과 ‘전략’을 중심으로 이해·표현 과정을 구성하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교육 내용을 주로 마련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컨대 2009 개정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에서 ‘문화의 계승’과 관련 성취기준은 듣기·말하기 영역의 ‘(13) 전통적 듣기·말하기 문화를 이해하고, 오늘날의 듣기·말하기 문화를 성찰한다.’ 정도 이고, 다른 성취기준들은 전략 중심의 기능적인 성취기준이 대다수다.<sup>8</sup> 국어교육의 전체 목표에서는 문화를 창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선언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전통 언어문화의 계승과 관련된 성취기준은 이해·표현 영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라고 천명한 것은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가치 있는 언어문화를 전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걸음 더 나아가 학습자 스스로 주체적으로 문화(文化)를 계승하고 창달하는 능력을 기르는

---

8 다른 시기의 교육과정에 비해 성취기준이 많고 구체적이었던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듣기·말하기 영역 및 심화 과목인 화법 과목에서 전통적인 말 문화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말 문화를 성찰하는 성취기준들이 보다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8-읽-(3)]시대적·사회적 배경,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하여 글의 의미를 해석한다.’, ‘[9-말-(4)]우리나라 전통적인 해학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답에 활용한다.’ 등의 성취기준 등 전통 언어문화의 계승과 직접 관련되는 교육내용을 설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역시 대다수가 ‘장르+기능이나 전략’의 구조로 되어 있다. 교육과정이 더욱 간략해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마저도 찾아보기 힘들다.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 05], 교육과학기술부(2011),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 5].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언어의 정수인 문화를 통해 ‘지적 세련으로서의 문화’를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달성하기 힘든 목표이므로, 국어교과 영역 전반에서 이를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법이나 문학 영역은 국어사적 언어 자료와 문학사적 언어 자료를 다루기 때문에 성취기준에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문화 계승 교육과 필연적으로 연계된다. 그러나 학습자의 언어활동을 근간으로 하는 이해·표현 영역은 사정이 다르다. 이해·표현 영역에서는 전통 언어문화의 계승과 관련된 명시적인 성취기준이 설정되지 않으면 관련 교육 내용이 수용되기 어렵다.

이해·표현 영역에서 전통 언어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능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 내용의 범위를 전통 언어문화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고전문학 교육 연구에서는 고전 산문들을 바탕으로 읽기·쓰기의 교육 내용 및 방법을 마련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이러한 연구 내용이 이해·표현 영역의 교육 내용으로 수용되지는 않았다. 이는 이해·표현 영역에서 고전 산문 텍스트를 읽기·쓰기의 교육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sup>9</sup>

한편으로 연구 관점 또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이해·표현 영역 전공자들이 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위한 문화교육 연구에 미진했다는 반성이기도 하다. 이해·표현 영역에서 기능주의적 관점에 경사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던 반면 선인들의 언어문화 연구에 무관심했기에 문학 중심으로 문화교육이 흐르는 것을 용인한 측면도 있었던 것이다.

9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해설에는 10학년의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인 ‘[10-읽-(3)] 여러 글을 읽고 전체나 가정을 비교 분석하고 평가한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글의 수준과 범위에 대한 해설에서 ‘전통적인 글’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교과서에서는 정약용의 <원목> 등 논변류의 고전 산문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읽기 영역에서 가치 있는 전통언어문화를 흡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전통 텍스트에서도 전제와 가정을 찾아보게 하는 데서 그치기 때문에 문화 계승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성취기준은 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 05].



## 2. 문화교육과 국어교육 영역과의 관계

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위한 국어교육의 목표는 언어의 본질적·도구적 특성으로부터 도출된다.<sup>10</sup> 언어는 사고·소통의 도구이며 그 자체로 문화다. 따라서 가치 있는 언어문화 자체에 대해서 알고,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적 사고 능력과 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학습자는 언어문화를 주체적으로 계승하고 창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위한 국어교육의 목표 구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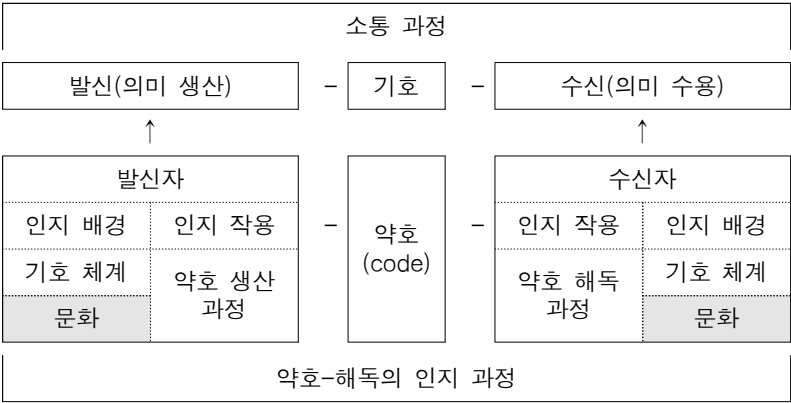
언어의 성격	국어교육의 일반 목표	문화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의 목표		
사고의 도구	사고 능력 신장	문화적 사고 능력의 신장	→	문화의 계승과 창달
소통의 도구	소통 능력 신장	공유하는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기호·표현·이해 능력인 문화적 소통 능력의 신장		
문화	문화에 대한 앎	문화에 대한 앎		

즉 학습자들의 문화 능력은 이해·표현 활동을 통해서 신장되는 측면이 있다. 언어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위해서 문화교육은 소통 행위를 초점에 두는 영역인 이해·표현 영역을 포함한 국어교육의 제 영역에서 분담해야 하는 것이다.

10 이는 초기의 논의에서도 확인된다. 이을환(1974)에서 국어교육을 문화교육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언어는 그 자체로 문화인 한편, 모든 물질·정신 문화가 언어로 전환기록되어 전승되므로 언어가 문화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는 발판이 된다는 것에 있다. 이을환(1974), 「국어교육에서 본 언어의 제시·메타(meta)·예술적 기능」, 『청과문학』 11,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4-15,

이해·표현 영역에서 문화교육의 입각점은 소통 행위에서 가치 있는 언어문화가 담당하는 역할에 근거해서 세울 수 있다. 인간의 소통 행위는 상징 기호를 통한 교섭행위이며, 소통 상황에서는 약호화(encoding)와 해독(decoding)의 인지 과정이 일어난다. 자의적 기호인 상징은 사회적 약속과 관습에 의해 해석되고 생산된다. 언어문화가 기호를 생산하고 해석하는 기준으로서 발신자와 수신자가 공유하는 약속체계로 기능하는 것이다.<sup>11</sup>

표 2. 약호 생산 및 수용에 작용하는 문화



이해·표현 교육에서 가치 있는 언어문화를 활용하는 것은 수준 높은 약호 해석-소통의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이해·표현 교육에서도 가치가 있는 언어문화들을 교육 내용으로 수용함으로써 학습자의 문화적 사고 능력 및 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교육 내용을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설득 전략이 훌륭하게 드러나 있는 상소문 등을 읽기 제재로 활용하거나, 고전 산문의 쓰기 전략 등을 쓰기 교육

11 국어 문화는 ‘국어 생활에서 나타나는 합의된 약호’로 정의될 수 있다. 김대행 (2006), 『국어생활, 국어문화, 국어교육』,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1-30.

내용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승된 문화’란 전해진 사유 체계이기도 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언어문화 유산들의 행간(行間)에 내포된 선인(先人)들의 사유 체계를 읽어 내어 교육 내용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해·표현 영역에서는 이렇듯 ‘정전’이라고 할 만한 가치 있는 전통 언어문화 텍스트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고려·조선의 수많은 수준 높은 논변류 산문들이나, 근대 시기의 산문들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산문들은 문학 영역에서도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문학’ 개념이 통시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학/비문학’의 개념 범주의 모호함에서 기인한다. 현대의 문학이 허구적 상상력에 의한 문예문을 의미하는 것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문학은 자신의 인식을 직접 표현하는 기술(記述)·의론(議論)류의 글을 포괄하는 개념이었다.<sup>12</sup> 따라서 옛 시대에는 논(論)이나 설(說) 등 이치를 해설하거나 주장을 펼치는 갈래가 오히려 높은 수준의 문학 갈래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재의 관점에서 위 실용문들은 비문학처럼 보인다.

그나마 고전 논(論)이나 설(說) 등은 문학교육의 내용으로 수용되고는 있다. 문학 영역에서는 옛 개념의 문학과 근대 이후 개념의 문학이 함께 교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의 텍스트들은 비실용적인 문예문만이 문학 영역에서 다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근대 이전에는 문학이었으나 근대 이후에는 문학이 아닌, 이를테면 <동학창의문>과 같은 주장하는 글은 문학 영역에서도 배제되었다.<sup>13</sup> 가치

12 원래 한문 문화권에서 ‘문학’이라는 용어는 예술을 뜻하기보다 ‘도를 담은 그릇[재도지기]’을 뜻하는 말로 주로 쓰였다. 문학이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논어(論語)』의 ‘선진편(先進篇)’에서 공자(孔子)가 덕행, 언어, 정사(政事), 문학을 구분하여 “제자들 가운데 자유(子遊)와 자하(子夏)가 문학이다(文學 子遊子夏)”라고 한 부분이다. 주자(朱子)는 이를 “시서예악(詩書禮樂)을 배워 능히 언어로 표현하는 것(文學 是學于 詩書禮樂之文 而能言其意者)”이라고 풀이하였다. 최초의 문학 개념이 학문 개념에 가까웠기 때문에, 선인들의 문학 개념은 현재 우리가 인식하는 문학 개념과 큰 차이가 있다.

13 이는 이광수의 비평문을 기점으로 현대와 같은 문학 개념이 성립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광수는 1916년 11월 10일부터 23일에 걸쳐 『매일신보』에 <문학이란 하

가 있는 언어문화가 교육 내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상은 이해·표현 교육에서 흡수해야 할 교육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표현 교육에서 문화를 계승하고 창조의 자원으로 삼는 것은 국어교육 본연의 목적인 문화 계승과 창달을 위한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으로 이러한 관점은 기능주의적 관점에 따라 실용주의로 경사된 이해·표현 교육이 새로운 돌파구이기도 하다.

### Ⅲ. 실체 중심에서 수행 중심으로

#### 1. 깊이 있게 이해하기

주체적으로 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문화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언어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고는 ‘실체 중심’의 교육을 극복하고 ‘수행 중심’의 교육을 지향해야 함을 역설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언어문화를 탐구하는 문화교육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치 있는 언어문화를 교육 내용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전을 구성하는 과정이 선행되는데, 주로 권위 있는 가치 평가에 의존하여 구성된다. 이를테면 이미 가치가 있다고 여겨 온 관습적 해석을 받아들이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가치를 탐구한 학계의 해석을 수용하는 등의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정전에 대한 해석 및 가치 평가의 권위는 정전의 권위와 등가로 여겨진다.

이러한 입각점에서의 문화교육은 텍스트라는 실체의 권위 자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텍스트에 대한 충실한 수용은 곧 텍스

---

(何)오>라는 글을 발표하여, ‘문학’을 서구 ‘literature’의 번역어로 활용할 것을 논하면서, 문학을 ‘특정 형식 하에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글’로 한정하였다. 여기서 ‘특정 형식’이란 문예적 형식을 뜻한다. ‘문학’의 개념이 기존의 어의(語義)에서 탈피하여 문예문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트에 대한 해석 관점을 충실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교육 관점은 김대행 외(2000)에서 사용한 ‘실체 중심’이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sup>14</sup> 이 관점에서 교육은 ‘텍스트’나 ‘작가’ 등의 실체를 중심으로 일어난다. 교육과정에서 중시되는 것은 텍스트에 대해 선행된 해석 및 가치 평가를 수용하는 것이다. 학계의 해석에 따라 의미 결이 풍부하게 재구된 정전은 교육 자원으로 수용되어 학습자가 언어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한다. 이는 ‘사실 자체를 충실히,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알게’ 하는 효용이 있다.<sup>15</sup>

그러나 실체 중심의 문화교육은 문화를 계승하고 창달하는 능력을 기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식의 수용이 학습자들이 주체적으로 문화를 계승하고 창달하는 능력으로 직결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학문적 탐구 과정은 사상(事象)을 재인식하는 과정으로, 정전에 대한 해석이나 가치 평가가 확고부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진리가 아니라 ‘논쟁’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다시 반박될 가능성이 내포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화의 계승 및 창달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교육 관점 및 방법이다. 먼저 학습자를 보는 관점이 전환되어야 한다. 브루너Bruner는 『교육의 문화The Culture of Education』에서 학생에 대한 가설에 따라 교육 방법을 넷으로 구별하고, 학습자의 역할은 이 넷 중 어느 하나로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역설하였다. 학습자는 ‘모방적 학습자’일 수 있고, ‘교훈적 교수의 대상자’일 수 있으며, ‘사고하는 사람’일 수 있고,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사람(메

14 ‘실체 중심’은 원래는 문학 교육의 관점을 논의하기 위한 용어였으나, 문학을 넘어 비문학을 포함한 언어 텍스트 역시 ‘실체’이므로 언어 텍스트 교육에 대한 관점으로 유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비문학’이란 고전적 개념이 아닌 현대적 개념이다. 논설문, 설명문 등 이광수 이후 정립된 현대의 ‘문학’ 개념에서 벗어난 실용문과, 이와 연속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는 논변류 등 고전 산문류 텍스트들을 포괄한다.

15 김대행 외(2000)에서는 ‘실체 중심의 문학관’을 설정하여, “문학을 가시적인 어떤 대상으로 보아 그 존재와 가치를 설명함으로써 문학을 이해하고 설명함으로써 문학에 접근하는 관점”이라고 정의한다. 김대행 외(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타적 고찰이 가능한 사람)’일 수도 있다.<sup>16</sup> 실체 중심의 관점은 학습자를 ‘모방적 학습자’와 ‘교훈적 교수의 대상자’로 상정한다. 그러나 수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습자를 ‘사고하는 사람’이자 ‘많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관점 극복이 필요한 것이다.

‘사고하는 사람’으로서의 학습자는 해석이나 평가가 완료된 문화를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에 대해 스스로 탐구하는 사람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학자의 탐구 과정과 같이 문화적 가치를 탐구하게 함으로써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게 하는 방향으로 구상할 수 있다. 브루너(Bruner)는 『교육의 과정 *The Process of Education*』에서 ‘지식의 구조’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학습자들의 지성적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학자들처럼 탐구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sup>17</sup>

학계의 논의들은 결과인 한편으로, 아직 미완된 결론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는 학문적 탐구의 과정이다. 학자들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논점을 제시한다. ‘가설 설정-논증-반박’으로 이어지는 비판적 사고의 과정 자체를 교육과정으로 삼아, 학습자들이 언어문화를 깊이 있게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가치 평가를 하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학문적 논의 과정은 그 자체로 학습자들이 주체적으로 문화를 계승하는 관점을 기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자원이다.

류수열 외(2015)는 학문적 논의 과정을 고전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제시한 논의다. 이 논의에서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정설로 굳어졌으나 사실은 학설계에 의해 ‘오류’로 밝혀진 지식이 있더라도, 이를 교정 대상으로 보기보다, 학습자를 탐구하게 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자원으로 볼 것을 주장한다. 가설이 논파되고 새로운 가설이 세워지는 논의 과정은 교육적으로 학습자들의 성장을 도모할

16 Jerome S. Bruner (1996), *The Culture of Educ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강현석·이자현 역(2005), 『교육의 문화』, 교육과학사, 158-63.

17 구영혜(1972), 「Jerome S. Bruner의 지식구조론에 대한 분석적 고찰: 특히 그 사상적 배경 및 교육 실천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교육 연구』 40,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52-76.

수 있다는 것이다.<sup>18</sup>

학습자들은 문화에 대한 탐구를 통해 스스로 비판적·창의적 사고를 활용해 문화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는 학습자들을 관습을 비판적이고 창조적으로 독해하는 문화 주체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학습자들이 문화에 대해서 스스로 탐구하는 것은 문화 교육의 목표인 ‘주체적’인 문화 계승 능력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탐구 능력은 언어 텍스트 전반을 다루는 국어교육 영역 전반에 걸쳐 설정되어야 할 연구 과제이기도 하다. 문법 영역에서는 언어적 사고력의 개발을 위해 탐구 학습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와 결합하여 문화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탐구 학습 모형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문예문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언어문화 유산들이나 선인들의 화법 문화나 독서 문화 등에 대해서도 지적 탐구를 통해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학습자로 하여금 ‘탐구’하게 하는 것은 교육 일반과 관련해서는 사고력 신장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국어교육이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문학 교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관점이기도 하다.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삶의 문제로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sup>19</sup>

---

18 이 논의는 사설시조의 향유층에 대한 학계의 주류적 해석과 교과서의 해석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동태적인 속성을 지닌 ‘학술 담론’과 달리 한층 늦게 이를 받아들이는 ‘교육 담론’ 사이에는 시차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밝혔다. 류수열·이지선·김세림(2015), 「학술 담론과 교육 담론의 거리에 대한 비판적 성찰-사설시조 향유층 논란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7, 한국문학교육학회, 85-121.

19 장상호(2008)에서 교육학이란 인식의 미완을 전제로 탐구하는 과정 자체를 학문적 구조로 지니는 학문이며, 교육적 인식론이 오히려 지식을 객관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인식적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임을 제시한다. 장상호(1997), 『학문과 교육(상)』, 서울대학교출판부.

## 2.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기

계승된 언어문화는 재해석 텍스트로 생산됨으로써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게 된다.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논증하거나 사상(事象)을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인지 과정으로 현재의 표현 활동에도 나타나는 쓰기 목적이다. 현대의 비문예문 중 가장 핵심적인 문체라 할 수 있는 논증적·설명적 문체의 경우에도 논증을 중심으로 하는 논설문(argumentative texts)은 고전의 논(論)과 설(說)이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갈래와의 창작 목적상 연속선상에 있으며, 사실적인 정보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보고문(expository text)은 기(記)와 록(錄)의 전통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 같은 목적의 글을 표현하기 위해 활용된 고전 수사는 현대의 수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것이다.

이를테면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기호화한 갈래들이 나타나는 설득력의 교육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기미독립선언문>이나 동학의 <창의문> 등 대중적인 파급력을 보여준 명문(名文)들이나, 남명 조식이 자신의 명운(命運)을 걸고 왕에게 올렸던 <단성소> 등에서 찾을 수 있는 설득 전략 등은 표현·이해 교육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 줄 우리의 소중한 언어문화다.

고전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선행 논의를 참고로 전통 문화를 창조의 자원으로 활용할 때의 가능태는 다음과 같이 구조화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내용 생산을 위한 자원으로 옛 언어문화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보편적인 방식이다. 고전 문학의 내용을 표현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 중 대표적인 방법이 패러디의 방법으로, 교육 현장에서도 자주 수행된다. 고전은 선인(先人)들이 만들어 놓은 창의적 상상력의 보고로서 학습자들이 새로운 창조 자원이다. 이러한 방식은 창의적 사고 신장이라는 교육 목표와도 맞닿아 있는 한편, 학습자가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새로운 고전을 만들어 내며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 학습자는 이 과정에서 낫익은 것을 확인하는 즐거움과, 새



로운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된다.<sup>20</sup>

둘째, 문체나 갈래 등 양식을 표현 자원으로 되살리는 방법도 있다. 창의적 표현 방식이란 관습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예컨대 현대소설에서 ‘전(傳)’의 표현 관습이 활용된다든지,<sup>21</sup> 현대에 생명력이 다한 ‘애제류’ 글쓰기의 현대적 의의를 밝혀 우리 글쓰기에 나타난 인간애의 전통을 살피는 한편 이를 되살릴 수 있는 글쓰기 방법을 도출하는 논의,<sup>22</sup> 고전의 자전(自傳)·탁전 등 자기(自己)를 형상화한 글쓰기 갈래에서 수사 원리를 도출하는 논의 등은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논의들이다.<sup>23</sup> ‘논설문’으로 대표되는 현대의 비문예문 창작과 관련해서도 고전의 표현 원리를 참고한 논의들이 있다. 예컨대 주재우(2012)의 논의는 ‘설’ 양식이 여전히 현대에도 유효한 글쓰기 양식임을 밝혀, 그 원리를 도출하여 글쓰기 교육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다.<sup>24</sup>

셋째, 전통적 사고 또한 창조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무형의 문화유산이다. 김대행 외(1995)에서는 ‘시조’를 통해, 선인들의 ‘불러들 이기의 사고 구조’를 읽어낸다. 이는 객관적인 물(物)과 내가 관계를 맺고, 의미를 부여하는 ORM(Object-Relation-Meaning) 구조다. 특히 선인들은 자연과 인간이 다르다고 보지 않고, 물아일체나 정경교유의 상상력이 사고 체계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물(物)과 나[我]를 분리하는 근대적 사고 체계가 형성된 후로는 잃어버린 사고 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인들의 상상력은 이해·표현 활

20 류수열(2015), 「창조적 문화 세대를 위한 고전문학 교수-학습의 설계-고전문학의 패러디 활동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58, 국어교육학회, 281-308.

21 김성진(2003)에서는 현기영의 『거룩한 생애』가 고전의 ‘전(傳)’ 양식을 활용한 것임을 밝혀, ‘법고창신’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인해 관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글쓰기가 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김성진(2003), 「글쓰기에서 관습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현기영의 『거룩한 생애』에 나타난 전 양식의 활용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16, 국어교육학회, 91-118.

22 김중철(2011), 「애제류의 갈래 성격과 글쓰기 특성」, 『동방한문학』 48, 동방한문학회, 209-228.

23 김성룡(2010), 「중세 글쓰기에 나타난 자아정체성의 교육적 가치」, 『작문연구』 11, 한국작문학회, 111-136.

24 주재우(2012), 「설 양식을 활용한 유추적 글쓰기 교육의 구도」, 『고전문학과 교육』 2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99-124.

동을 할 때 현대에 당면한 문제를 현대의 사고 구조를 활용하여 해결하지 못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상상력의 한 양식이 된다.

전통적 사고방식을 탐색하는 교육 방향도 가능하다. 예컨대 박수밀(2008)에서는 성리학의 ‘격물치지’로서의 유추와, 실학에서의 유추 과정을 비교하는 논의를 통해 이러한 선인들의 사고 과정이 국어적 사고로서 교육적 가치가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명시화되지 않은 선인(先人)들의 사고 체계를 텍스트를 통해 재해석하는 논의인 것이다.<sup>25</sup> 이는 국어교육을 통해 가치 있는 문화 전통을 수용하고 창조에 활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된다.

지식은 곧 수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문화 계승과 창달이라는 수행적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수행해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이해·표현 교육 전공에서는 문화 계승과 창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고전 텍스트에 대한 논의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이해·표현 교육 내용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 IV. 맺음말

국어교육을 문화론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문화의 계승과 창달에서의 국어교육의 역할을 살피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단순히 교재나 교수자의 관점을 받아들여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은 학습자들을 주체적으로 언어문화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문화 계승과 창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 주체로 성장시키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입각점은 곧 학습자들이 무엇을 배우는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다. 교육과정을 살폈을 때 고전 글쓰기 전통을 계승하고 창달하기 위한 교육 내용은 이해·표현 영역에 거의 수용

---

25 박수밀(2008), 「고전에서의 유추와 실학적 유추의 탐구 의미 고찰」, 『국어교육』 127, 한국어교육학회, 339-363.

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간 문화교육은 주로 문학 영역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문학 중심의 문화교육론은 학습자의 주체적인 문화 능력을 기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문화’에서의 ‘언어’는 사고 도구이자 소통 도구로서 비판적 사고와 창조적 사고의 길항 관계 속에서 문화를 계승하고 창달하는 역할을 한다.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문화적 전승과 창조의 도구로서 언어를 ‘활용’하는 능력에까지 나아가려면 사고와 소통의 도구로서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을 전제로 해야 한다. 사고, 소통 행위 및 결과를 다루는 이해·표현 영역에서도 문화교육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문화 계승·창달을 위해서는 실체 중심의 교육에서 수행 중심의 교육으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하고, ‘수행’은 깊이 있는 이해와 창의적인 재해석의 양상으로 구조화하였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시키기 위해 탐구하게 하는 것과, 고전의 내용, 문체, 사고 체계 등을 창조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기능 중심 표현 이해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는 한편, 그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교육 내용을 수행의 국면에서 통합하는 지향점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2015.11.02. 투고되었으며, 2015.11.02. 심사가 시작되어 2015.12.0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교육부(199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 1].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 05]
- 교육과학기술부(2011),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 5].
-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 구영혜(1972), 「Jerome S. Bruner의 지식구조론에 대한 분석적 고찰: 특히 그 사상적 배경 및 교육 실천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교육 연구』 40,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52-76.
- 김대행(1994), 「국어교육과 국어교과학」, 『선청어문』 22(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59-96.
- 김대행 외(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대행(2006), 「국어생활, 국어문화, 국어교육」,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1-30.
- 김성룡(2010), 「중세 글쓰기에 나타난 자아정체성의 교육적 가치」, 『작문연구』 11, 한국작문학회, 111-136.
- 김성진(2003), 「글쓰기에서 관습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현기영의 ‘거룩한 생애’에 나타난 전 양식의 활용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16, 국어교육학회, 91-118.
- 김종철(2011), 「애제류의 갈래 성격과 글쓰기 특성」, 『동방한문학』 48, 동방한문학회, 209-228.
- 김창원(2002), 「국어교육과 문화론: ‘국어 문화창조’의 이념은 정당한가」, 『한국초등국어교육』 20, 1-23.
- 류수열(2015), 「창조적 문화 세대를 위한 고전문학 교수-학습의 설계—고전문학의 패러디 활동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58, 국어교육학회, 281-308.
- 류수열·이지선·김세림(2015), 「학술 담론과 교육 담론의 거리에 대한 비판적 성찰—사설시조 향유층 논란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7, 한국문학교육학회, 85-121.
- 민현식(2005), 「국어 교육 개관」, 『국어교육론 1. 국어 교과 교육론』(박영목

- 외, 2005), 한국문화사.
- 박영목 외(2005), 『국어교육론 1. 국어 교과 교육론』, 한국문화사.
- 박수밀(2008), 「고전에서의 유추와 실학적 유추의 탐구 의미 고찰」, 『국어교육』 127, 한국어교육학회, 339-363.
- 윤여탁(2015), 「창의적 문화 세대를 위한 국어교육의 지향」, 『국어교육연구』 57, 한국어교육학회.
- 이을환(1974), 「국어교육에서 본 언어의 제시·메타(meta)·예술적 기능」, 『청파문학』 11,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2-23.
- 장상호(1997), 『학문과 교육(상)』,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동화·이현복·최현섭(1984), 『(초중등개정)국어과교육론』, 선일문화사.
- 주재우(2012), 「설 양식을 활용한 유추적 글쓰기 교육의 구도」, 『고전문학과 교육』 2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99-124.
- Bruner, J. (1996). *The culture of educ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 강현석·이자현 역(2005), 『교육의 문화』, 교육과학사.

## 국어교육과 문화의 계승과 창달

이삼형 · 이지선

본고의 목적은 현재 국어교육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화론적 관점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문화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문화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은 학습자가 국어문화를 창조하는 주체로 성장하게 하는 목표로 설정해 왔다. 그러나 그간 문화 계승과 창달과 관련된 논의는 문학 영역 중심으로 주로 논의되었기 때문에 학습자가 문화를 계승하고 창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문화를 계승하고 창달하게 한다는 목표는 수행을 통해 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에, 사고와 소통을 다루는 이해·표현 영역을 포함하여 국어과의 각 영역을 통해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문화교육을 위해 실체 중심의 교육관을 전환하여 수행 중심의 교육관으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하였다. 학습자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내용은 학습자들의 깊이 있는 이해와 창조적 재해석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한 교수 방법으로 탐구와, 내용, 문체, 사고 체계 등을 계승하여 창조에 활용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국어교육, 문화교육, 문화 공동체, 비판적 사고, 문화 창조

## ABSTRACT

### Korean Education for Culture Creative Inheritance

Lee, Samhyeong & Lee, Jeesun

The purpose of this manuscript is to take a look into the real state of the culture theory viewpoint that has been discussed in the current Korean-language education and to seek the direction in which the Korean-language education for the successions and the developments of the culture should advance. So we are emphasized that the cultural education must stand up throughout the whole, which is comprised of each of the domains, of the Korean-language education by disclosing the personality of the Korean-language education as a cultural education from the essential and instrumental personality of the Korean language. Also, regarding the direction for the Korean-language education for the cultural successions and developments, the following were proposed: Firstly, the formation of a cultural community by accommodating the valuable culture; Secondly, the reinterpretation of the cultural phenomena by utilizing the critical ways of thinking; And, thirdly, the possibility of the setting up for the utilization of the language culture as a resource for the cultural creations. Or,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this is a time point at which the general approach by considering the cultural education centered on the ways of thinking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expressions is needed in order to accomplish the goal of the Korean-language education, which is said to be the independent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the culture by the learner.

**KEYWORDS** Korean education, cultural education, cultural community, critical thinking, cultural creation